

教養課程 運營上의 問題點

威 宗 圭
(淑明女大 教育大學院長)

.....
 教養課程의 意義나 概念, 編制上의 問題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
 나 그 運營의 合理化를 위한 研究는 크게 關心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변화—적응—모순」으로 시사되는 오늘의 教育現實에서 成
 就目標을 달성할 수 있는 「矛盾」 없는 運營體制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1. 머리말

오늘의 教育은 「變化—適應—矛盾」의 用語로
 시사되고 있다. 급진적인 變化에 대한 적절한
 「適應」을 하지 못해 많은 「矛盾」을 낳아 심지어
 는 「教育危機」라는 말까지 使用되고 있다. 이
 「矛盾」을 낳고 있는 것 중의 하나로 大學 教養
 課程의 運營에 관한 問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變化하는 社會에 對應하기 위한 大學교육에서
 는 폭넓은 教養을 준비한 全人으로서의 人間교
 육에 注力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專門教育에는 置
 重하고 있으나 教養教育은 많은 경우 아직 形式
 的인 運營의 실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다.

受講하는 학생도, 講義하는 교수도, 또 運營
 당국인 大學도 과거의 인습적이며 傳統적인 내
 용과 방법을 비판없이 답습함으로써 時代적인
 요청을 외면하고 있는 實態에 머물고 있는 경향

이 많은 것이다.

물론 이 問題에 대한 革新의 努力이나 試圖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늘날 汎世界的으로 추진
 되고 있는 教育改革運動의 일환으로서 大學 교양
 과정의 혁신운동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72년에 「大學교육 개혁의 국
 가적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이 發表된 후 '73년
 부터 실험대학을 중심으로 大學教育의 개혁을
 위한 研究가 꾸준히 進行되어 오고 있다. 그리
 고 실험대학의 研究에서는 교육과정의 개편과 教
 授方法의 쇄신에 관한 問題가 주요과제로 浮刻
 되어 많은 成果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여기에는 問題가 있다. 오늘에 이르기
 까지의 教養課程에 관한 주된 연구는 교양교육
 의 의의나 개념, 專攻教育과의 關聯·調和, 構
 成原理와 編制, 世界 各國의 教養教育에 관한 것
 등이 주된 內容을 이루었고 運營上의 問題는 심
 층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 大學에서의 이 分野에 대한 연구도 學則이나
 시행세칙에서의 教科目的 개제, 교수방법의 혁

신, 評價基準의 개정 등 임기응변적인 변화가 주된 內容을 이루어 왔을 뿐 그 合理的인 運用方案에 대한 研究는 거의 不毛地에 가까운 실정이라 하겠다.

모든 계획은 실천방법의 여하에 따라서 그 成果가 좌우된다. 大學의 교양과정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기에 그 構成原理나 編制方法을 究明함과 더불어 合理的인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이 매우 艱難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아무리 理想的으로 교과목을 편제하고, 학점을 배당하며, 완벽에 가까운 敎養課程을 구성해도 運營의 합리성·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면 敎養教育의 成就目標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거론한 意圖에 비추어 敎養課程 運營面에서의 몇 가지 問題點을 논의코자 한다.

II. 問題의 提起

1. 學年別 敎科配當

흔히 말하기를 「敎養教育은 그 자체로서의 意義와 目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다른 自的을 위한 手段으로 생각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에선 「전공과목을 研究하는 데 불가결한 학문적인 基礎를 構築하는 것」이므로 교양과목은 專攻科目 研究를 위한 先修科目으로서의 性格을 띠어야 한다고 맞선다. 양자 사이에는 좀처럼 양보가 없다.

그런데 대학에서의 敎養課程은 일반적인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연구를 위한 基礎科目으로서의 內容으로 編制하여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들 교과목을 1·2학년에 集中的으로 配定하고 있어 高等學校의 教育內容과 중복되는 문제점을 지니게 한다. 이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교양과목에 대해 흥미를 잃고 소극적인 受講態度를 취하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集中的인 운영방법은 敎養教育으로서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게 되며 한편, 專攻科目과의 유기적인 關聯性도 높이지 못하게 된다. 요는 교양과정이 기대하는 成果를 달성할 수 없는 結果를 낳게 하는 한편, 敎養教育의 形式的·姑息的인 상태를 더욱 조장하는 要

因 중의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물론 敎養科目이 기초과목으로서의 特性을 포함하므로 下級學年에서 집중적으로 이수케 하는 것이 좋다는 점에는 妥當性이 있다.

그러나 敎養教育은 전문교육을 위한 準備教育이 아니므로 下級學年에서 이수해야 한다는 原則은 성립될 수 없으며, 專攻科目의 性質에 따라서는 上級學年에 배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는 것이다.

下級學年에 집중적으로 配當하였기 때문에 高等學校를 갓 졸업한 學生들이 큰 期待를 걸었던 대학교육에 대해 失望하여 不滿의 要因을 낳는 가 하면, 上級學年이 되어 敎養科目에 대한 필요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생각없이 履修해 버린 후였다는 아쉬움을 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 不滿이나 아쉬움은 高等學校에서 學習한 類似敎科가 대부분이며 그 水準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는 判斷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은 고등학교 教育內容과의 연계성의 缺如를 말해주는 것이며, 또 동시에 大學生活의 첫 출발에서 學生들로 하여금 실망을 느끼게 하여, 大學에 대한 그릇된 사고와 態度를 갖도록 조장할 可能性이 많은 것이다.

그들이 大學에 입학하기까지의 努力과 지난날의 대학생활에 대한 期待水準에 비추어 入學하고 보니 不滿스러운 點이 많아지는 中, 敎養課程에서 느끼는 실망이 가장 큰 것으로 反映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본래 大學이 갖는 學問研究에 대한 긴장감을 줄 수 없어 敎養課程을 集中的으로 이수하는 동안은 空白, 失望, 나아가서는 虛脫感을 갖게 되는 기간이 될 뿐만 아니라, 學生에 따라서는 심한 경우 혐오감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高等學校까지의 教育체제에서 연유한 누적된 欲求不滿을 학업으로부터의 解放에서 찾으려는 경향으로 빛나가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1·2학년에서의 집중적 배당에 대한 문제점은 특히 外國語 教育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外國語도 대부분의 경우 1·2학년에 배당하는 劃一的인 운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제 1외국어는 반드시 英語여야 하는가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앞으로 展開될 다자적인 國際交流와 발달되어 가는 學問領域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外國語를 과해야 할 것이며, 또 學生들의 전공 영역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開放되어야 할 것이다.

요는 많은 대학에서 適用되고 있는 第1·第2外國語의 구별을 폐지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종류의 외국어를 몇 段階로 편제하여 學生들이 1인 1과목의 임의로 선택케 함으로써 外國語 教育의 획일화를 止揚하는 한편, 4學年까지 延長하여 융통성 있게 運營토록 해야 할 것이다.

西獨의 大學에서는 上級學年에서 새로운 角度로 교양에 관한 科目을 이수케 하는 傾向이 있다 함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듯 下級學年에서의 教養課程의 집중적인 운영은 大學生活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對策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選擇教科의 運營

현재 진행되고 있는 教育改革運動의 특징은 다채로운 선택교과의 運營을 期함으로써 學生에게 폭 넓은 學習을 통한 個性伸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最近의 大學課程은 다양한 教科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선택과정에 비중을 두어 다채로운 운영을 하는 方向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剛一性和 閉鎖性을 지양하기 위한 연구의 동태라 하겠다. 그 結果 각 大學에서는 個性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교양과정은 過多한 必須 또는 共通 教養科目을 과함으로써 획일성을 면치 못하는 問題點을 안고 있다. 學生 개개인의 個性의 신장·발휘는 個人的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國家·社會의 發展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오늘의 大學에서 운영되고 있는 教養選擇課程은 이들 教育의 요구나 추세에 부응하

지 못하고 學點配當에서는 명목상의 선택과정이었으나, 教育課程內容에서는 전공과목의 기초나 연장이라는 性格을 띠고 있는 教科群이 많은 실정이다.

또 教養選擇은 編制上으로는 다양하고, 다채롭게 갖추어 놓고는 있으나, 실제의 운영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必須化한 結果를 낳게 하는 경향이 많다. 예를 들면 많은 選擇教科群에서 한 教科만을 開設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그러하다. 학교경영의 財政的 이유, 教授招聘難의 이유로서 부득이한 處事라 하지만 이것은 教科運營面에서의 一方的인 처사요, 심하게 말하면 대학당국의 橫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명목상 으로부터 선택이지, 실제적으로는 學生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學校當局이나 教務處가 선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專門教科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으로 轉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운영의 財政的 理由, 선택과정의 輕視傾向이 더욱 助長하여 그 결과 선택과목은 編制되어 있어도 수강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다. 뿐만만이 아니다. 선택교과가 開設되어 있어도 專攻이나 필수과목과의 時間重複으로 부득이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한 調査에 의하면 선택교과에서 이런 事由로 受講의 기회를 놓친 학생이 54.9%, 受講치 못한 教科目數가 35個 科目에 달하고 있었는데, 이는 결코 참고적으로 듣고 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라 하겠다.

이런 점에 비추어 學生들이 이수코자 하는 선택과목을 자유로이 수강할 수 있는 幅을 넓히고 專攻이나 必須科目은 오전에, 選擇科目은 오후에 配當하는 등의 方法을 연구하여 선택교과를 효율적으로 運營해야 하겠다.

3. 形式性的의 打破

우리 나라의 教養教育은 1946年, 서울大學校가 종합대학으로 편성되면서부터 논의되고 실시되어 왔는데, 大學教育에서 가장 빈번한 논의와 반성의 對象이 되어 왔다. 그리고 그 論議나 반성의 초점은 바로 教養課程의 편성이나 運營面

에서 形式性이 만연되고 있다는 점에 연유하는 것이다.

교양교육에 참여하는 教授들의 善意와 意慾, 이를 주관하는 敎務當局, 또 文敎當局의 관심이 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學生들은 卒業에 필요한 學點取得을 위한 形式에 져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

이렇듯 교양과정의 運營에서 形式性을 초래케 한 데는 많은 要因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첫째로, 敎養課程, 그 중에서도 必須科目은 人生의 충실한 생애를 위하여 명실공히 必須의 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學點取得을 위한 必須가 아니고, 그 科目의 이수 여부가 곧 삶의 能力에 실질적인 差異가 생기도록 하는 교양과목으로서의 必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必須科目은 그 폭을 좁히고 선택과정의 比重을 높임으로써 교양과정 구성에서의 確실성을 止揚해야 할 것이다. 즉 必須의 過多를 결과하는 多敎科 병렬주의적인 구성이나 敎科의 細分化에서 오는 폐쇄적인 性格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學生들의 관심과 의욕을 높일 수 있는 運營體制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교양교육의 形式性을 결과케 하는 또 하나의 要因은 교양과정을 강의하는 담당교수에 대한 配慮의 부족에 연유한다. 아무리 완벽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理想的으로 구성된 敎養課程이라도 그 運營의 成敗는 바로 직접 講義를 담당하는 教授의 指導能力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大學에서의 中堅教授는 주로 專攻科目을 담당하고 있으며, 敎養科目의 담당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원하고 때로는 기피하는 傾向까지 낳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 문제가 있다. 敎養敎育은 교양과목에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넓은 識見과 專攻科目에 대한 깊은 研究와 敎育경험이 많은 教授가 지도하는 것이, 일반교양의 함양과 더불어 學問으로서의 기초를 닦는 이종의 機能을 발휘시킬 초석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양교육의 方法과 관련해서 누가 敎授하느냐의 문제가 증시된다. 더우기 前述한 바와 같이 新入生들에게는 교양과목의 受講이 대학생활의 序幕이 되는데, 만일 학생들이 敎養課程에서 실망을 느낀다면 이는 大學課程의 全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可能性이 큰 것임을 감안하여 담당교수 문제에 유념치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한 調査에 의하면 교양교육을 중견교수가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學生反應이 58.6%에 달하고 있는 것은 교양과정의 運營에 좋은 示唆點을 주고 있는 事例라 하겠다.

4. 主體性的 提高

敎養課程의 運營에서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로 提起되는 것으로 指導內容에 관한 문제가 있다. 크게 나누어 歷史主義的 觀點과 普遍主義的인 觀點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敎科나 敎材의 문제라기보다는 敎育全體의 方向을 規定하는 문제로서, 그 어느 편을 중시하든지 불문하고 敎養敎育은 時代的 適合性和 한국인으로서의 主體性에 관한 것을 생각치 않을 수 없다.

大學은 韓國이라는 역사적 社會 속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 時代性和 主體性이 조화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 要望된다. 물론 대학에서의 研究나 敎授機能이 그 사회나 시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 大學本來의 기능을 떠나서 時代迎合的인 性格을 띠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나라 大學에서의 敎育內容이 우리 사회와 유리됨으로써, 경제적이고 고정적이며 國籍 없는 敎育으로 流轉되고 있는 내용을 바로 잡도록 運營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大學에서 필수 또는 선택으로 과하고 있는 哲學概論은 서양철학 위주로 되어 있어, 동양철학 특히 한국의 철학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으며, 人文科學에서는 한결 같이 西歐的인 것이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또 文化史는 으레 西洋文化史를 교수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는 專攻科目에서만 다루고 있는 경향이 많다. 물론 學問發達의 과정이나 성질로 보아 서구적인 것을 受容하고 증시하게 되는 것

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과 10餘年 후엔 한국의 未來社會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未來의 主役世代를 교육하는 大學에서는 自身들의 주변부터 알고 점차 연구의 범위를 擴大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學習이란 “近”에서 “遠”으로 발전되어져야 한다는 평범한 原理도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 서구적인 學問의 방법과 결과를 익힌다고 해도 韓國의인 것으로 소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및 창조적 능력을 기르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맺는 말

敎養課程의 운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였거니와, 敎養敎育은 그 意義나 概念의 差에 따라 어디에 重點을 두느냐에 대한 異論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同一敎科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도 크게 다른 內容을 다룰 수 있으며, 같은 學點 안에 담을 수 있는 敎育의 量과 質에도 큰 差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問題의 핵심은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따라 成敗가 좌우된다 하겠다. 물론 이와 같은 생각은 專門敎育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學問의 世界性으로 인해서 關係적인 講義만으로도 어느 정도로는 學習의 성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敎養科目은 學生들의 당면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해서 요구되는 能力이나 態度가 무엇인가를 고려해서 강의 內容을 調節해야 할 것이다. 전문교과에서와 같이 지식위주의 강의가 아니라 사고력, 판단력, 탐구력과 창의성을 啓發하고 伸張하는 일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敎養課程의 運營에서는 同一한 敎科를 많은 敎授가 분담하여 지도하므로, 그에 따른 異質의 學習方法의 적용으로 인해 큰

격차가 생긴다. 여기에서 分擔指導하는 교수 상호간에 교수요목, 진도표, 학습평가 등에 대한 協議를 거쳐서 共同計劃에 따른 協同的인 운영을 할 것이 要求된다.

이렇듯 이들 問題는 교양교육의 意義나 敎育本質論的인 관점, 나아가서는 오늘의 社會變化에 對應하고 未來社會에 對處할 수 있는 인간육성의 교육이라는 면에서 볼 때, 더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겠다.

이들 問題가 모든 대학에 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共通된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요인은 한결같이 知識偏重敎育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現實的 側面이나 産業의 高度化에 따른 교육외적인 理由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임을 看過할 수 없다는 점에 큰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즉 人間敎育의 理念을 구현하기 위한 교양교육의 方法은 기도하고 있으나, 高度産業社會의 출현은 人間生活에서의 合理的 機能性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외면케 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선택교과의 운영에 대한 試圖는 人的 資源이나 재정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운영의 稀薄화 경향을 脫皮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大學에서의 교양교육은 과거에 집착할 수 없음과 같이 현재의 實情이나 條件에만 구애받을 수도 없다.

오늘의 大學敎育은 英才를 대상으로 하든지 大衆을 대상으로 하든지 불문하고 미래사회的高等人力養成을 목표하는 것이며, 그 人力이란 한국의 미래사회를 책임져야 할 人力層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大學의 교양교육은 人間敎育의 理念을 바탕으로 적응과 창조를 기반으로 한 高等人力을 育成하기 위하여, 「변화」에 대한 「적응」에서 「모순」 없는 體制와 內容을 갖추어 運營의 효율화, 합리화를 期함으로써 敎養敎育의 成就目標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